

## 대졸자의 직장경력과 일자리 특성 - 수도권과 지역 대학 비교를 중심으로 -

신동준<sup>1)</sup> · 류지영<sup>2)</sup>

### 요 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도권 대학 졸업자들과 지방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첫 직장에 대해 두 지역을 비교하면, 정규직 비율, 상용직 비율, 직장규모, 임금수준에서 수도권 졸업자에 비해 지방대학 졸업자의 근무상황이 더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최대 4년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업력을 구성한 결과로 직장이동을 살펴보면고용형태, 직장규모, 임금에서 지방대학 졸업자가 수도권 대학 졸업자에 비해 힘든 상황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규직을 지속하는 비율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높은 반면, 지방대학 졸업자의 경우 비정규직을 지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장이동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지방대학 졸업자가 낮고, 직장이동에 따른 임금상승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가장 최근 데이터인 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현 일자리에서의 만족도와 수준일치도, 직장의 제도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만족도에서는 수도권 대학이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는데, 특히 복지후생과 안정성 부분에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업무와 본인의 기술과 능력과의 일치정도를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졸업자는 자신보다 높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지방대학 졸업자의 경우 낮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직장에서 4대 보험 지원이나 퇴직금, 상여금, 유급휴가 등의 지원제도에 대한 수혜도 대체로 수도권 졸업자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있었다.

선행연구들과 비추어볼 때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간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성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대학 육성정책이 실효성이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I. 서 론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지난 30년 동안 급속하게 팽창하여 이제는 80%에 이르고, 고등교육을 마친 청년층의 실업률 역시 좀처럼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특징 중 하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나로 단기간에 급속한 경제개발과 성장을 배경으로 높은 대학진학률은 사회이동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높은 교육열 자체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대학졸업자들의 공급 과잉은 청년 실업률을 높이고 국가경제에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 인력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의 개발과 투자가 집중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은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대학서열 형성, 진입에서부터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균형발전에 위배되고, 지역격차로 인해 불평등 구조가 공고화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특히 지방대학의 비중이 전체 대학의 6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는 더욱 더 크다고 하겠다.

현 정부에서도 2013년부터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방안과 법률제정,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단계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그 주요 골자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경쟁력이 있는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지방대학이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방대학 육성이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점과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와 지역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경제 역시 활성화 되는 성과가 무 엇보다 기대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기대에 앞서 가장 최근에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 대학졸업자와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차이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나는지 비교해 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 번째, 4년제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 졸업 이후 직업력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중 첫 직장에 대한 지역간 비교를 시도한다.

두 번째, 직업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졸업자들의 직장이동에 대한 지역간 비교를 하고자 한다.

세 번째, 조사응답자의 가장 최근 직장을 대상으로 대학 소재지와 직장 지역의 이동을 파악하고 직장 만족도나 일치도, 직장의 수혜제도 등에 대한 비교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분석이 주로 대졸자들의 직장획득과 경로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이라면, 세 번째는 응답자의 직장 만족도를 비교함으로써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비교를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어느 지점에서 드러나는지를 밝히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

대학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비교 분석은 2000년대 초반에 전국 규모의 패널자료가 구축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분석은 몇몇 논문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대표적인 데이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이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대학졸업생 경제활동상태 추적조사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청년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최바울, 김성환(2003)은 지방대 졸업생의 임금이 수도권 대학 졸업생에 비해 13%정도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류장수(2005)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장 이행기간 및 사업체 규모, 임금 측면에서 지방대 졸업생이 열위에 있으며, 지방간에도 차별성이 존재하여 충청권 대학 졸업생은 영남권이나 호남권 졸업자보다 수도권 졸업자들과 닮아 있음을 밝혔다. 이 외에도 종사상 지위에서 지방대 졸업생이 정규직에 취업한 비율이 낮았고, 직장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대학졸업생 경제활동 상태 추적조사를 이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박성재(2005)는 지방대 졸업자일수록 취업사업장의 규모가 작고 본인의 학력과 적성과 맞지 않는 일자리에 진입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저급직종치중도가 높아 지방대 졸업자의 하향취업 정도가 높았고, 임금수준 역시 수도권과 격차가 나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임금수준 차이의 원인으로는 개인적인 특성 이외에도 취업사업장의 특성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오호영(2007)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지방대 졸업생의 월평균 임금은 수도권대학 졸업생에 비해 11.5% 낮았고, 이는 지방대학의 낮은 수능점수와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에 집중된 상위권 대학의 영향력과도 관련성이 높으며 대학서열이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분석한 연구로는 김희삼(2010)이 있는데, 그 결과는 다른 조건이 유사할 때 비서울지역 대학졸업자는 서울소재 대학 졸업자에 비해 약 16% 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대학 입학당시 학과 평균 수능점수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수능점수 차이로 인해 임금 뿐만 아니라 사업체 규모나 직무 전공 일치도 등도 설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노동시장 성과 차이에 상당부분을 수능점수가 설명하는데, 수능점수는 다시 출생지와 14세 성장지, 고교소재지에 따라 격차를 보임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분석자료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직업력 자료를 구축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취업한 직장 수와 근속기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직업력을 이용하여 직업이동 과정 분석이 가능하였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직장에서 두 번째 직장으로 이동할 때 고용형태나 직장 규모, 임금에 대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지역별로 직업이동에 따라 취업조건이 상향되었는지 하향되었는지, 아니면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응답자의 직장만족도나 일치도, 보험 가입이나 수혜 등의 직장 환경 차이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물론 이 분석은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변화 과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선행연구들에서 임금비교나 차이에 대한 요인분석이 주를 이루는 점과 비교할 때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 III. 분석자료

본 연구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졸업 이후 직장경력과 일자리 특성을 수도권 대학 졸업자와 지방대학 졸업자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졸업한 대학 정보와 대학 졸업 이후의 직장 경력 관련 변수가 포함된 패널 자료가 필요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 KEEP) 조사는 청년층의 교육과 고용간의 연계성 및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종단적 자료이다. KEEP은 2004년 전국 중3, 고3학생 6,000명(2007년 특목고3 등 1,500명 추가, 2010년 대졸자 757명 추가)을 대상으로 1차(2004)년도 조사를 시작하여,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패널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KEEP 자료의 6차(2009)년도~9차(2012)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4년제 대학 졸업 이후 직장 경력과 일자리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KEEP 자료의 모든 코호트(중3코호트, 고3코호트, 보정코호트)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4년제 대졸자의 대학 이후의 직장 경력을 파악하기 위해 9차(2012)년도 기준으로 4년제 대졸자를 선별하고, 대학 졸업 이후 연속적인 직장 경력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 졸업 이후 조사를 실패한 경우가 있는 패널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9차(2012)년도 기준 최종학력이 4년제 대졸자인 패널은 1,541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전체 코호트 중에서 4년제 졸업자가 발생하는 시기인 6차(2009)년도부터 9차(2012)년도까지 모두 조사가 성공된 패널은 1,280명이었다. 6차(2009)년도~9차(2012)년도 기간동안 군입대로 인해 조사가 실패한 경우는 군입대 중에는 직장 경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대학 소재지 정보가 누락된 9명을 제외한 1,271명이 대학 지역별 직장 경력 분석의 최종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4년제 대졸자의 대학 지역별 현 직장 분석에서는 9차(2012)년도 조사 성공한 4년제 대졸자를 대상으로 분석 대상을 조정하였다. 9차(2012)년도에 조사 성공한 4년제 대졸자는 1,470명이었으며, 이중 취업자는 1,054명이었고, 그 중 임금근로자는 993명이 분석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졸업한 대학 소재지 구분은 크게는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였고,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sup>3)</sup>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방은 ‘충청’, ‘전라’, ‘경상’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제주 지역은 표본 수를 감안하여 제외하였다.

4년제 대졸자 1,271명의 대학 지역별 졸업자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 졸업자 36.7%, 지방대학 졸업자 63.3%로 구성되었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 21.3%, 경기, 인천, 강원 지역 15.4%, 충청 지역 23.2%, 전라 지역 13.1%, 경상 지역 26.9%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 졸업자가 56.4%, 여자 졸업자가 43.6%로 남자 졸업자가 여자 졸업자 보다 많다. 이는 보정 패널(남자 420명)<sup>4)</sup>을 분석에 포함한 영향으로 보인다.

3) 강원 지역 대학 졸업자의 수가 많지 않아 단독 지역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선행연구 등 경험적으로 보면, 강원 지역 대학생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며 통학하는 대학생이 많아, 경기, 인천과 함께 수도권 지역으로 묶었음.

4) 남자 패널의 군입대로 인하여 여성 패널과 대학졸업 등 사회 진출 시기가 차이가 발생하여 초기 취업자의 경우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 하였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성패널과 동일한 시기에 대학을 졸업한(전문대학 2007년 2월 졸업자 337명, 4년제 대학 2009년 2월 졸업자 420명) 남성 패널을 추가하였음.

<표 1> 대학 지역별 졸업자 현황

(단위 : 명(%))

		남자		여자		전체	
수도권	서울	140	(19.5)	131	(23.6)	271	(21.3)
	경기, 인천, 강원	108	(15.1)	88	(15.9)	196	(15.4)
	소계	248	(34.6)	219	(39.5)	467	(36.7)
지방	충청	182	(25.4)	113	(20.4)	295	(23.2)
	전라	77	(10.7)	90	(16.2)	167	(13.1)
	경상	210	(29.3)	132	(23.8)	342	(26.9)
	소계	469	(65.4)	335	(60.5)	804	(63.3)
전체		717	(100.0)	554	(100.0)	1271	(100.0)

#### IV. 분석 결과

KEEP 자료의 9차(2012)년도 기준으로 보면, 4년제 대졸자의 졸업(2008년 8월~2012년 2월) 후 기간은 최대 4년 정도(2012년 12월 기준)로 아직 졸업 이후 직장 경력을 분석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대학 졸업 이후 첫 직장의 특성 및 초기 직장 이동을 중심으로 지역별 대졸자의 직장 경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4년제 대졸자의 대학 졸업 이후 경험한 직장 수(2012년 12월 기준)를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1.76개, 지방 대학 졸업자는 1.70개로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다소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9개, 여자는 1.91개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 대상의 대졸자들의 대학 졸업 시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수를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동일한 기간 동안의 직장 수를 비교하기 위해 대학 졸업 시점과 일자리 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계산 값이 연평균 직장 수이다. 연평균 직장 수는 수도권 대학 졸업자와 지방 대학 졸업자 모두 동일한 0.65개로 나타났다. 이는 1년에 평균 0.65개의 일자리를 가진 수준이며, 근속년수로 보면 평균 약 1년 6개월 수준이다.

<표 2> 대학 졸업 이후 직장 수

(단위 : 명, 개)

		남자			여자			전체		
		빈도 (명)	직장 수 (개)	연평균 직장 수 (개)	빈도 (명)	직장 수 (개)	연평균 직장 수 (개)	빈도 (명)	직장 수 (개)*	연평균 직장 수 (개)*
수도권	서울	140	1.69	0.54	131	1.84	0.77	271	1.76	0.65
	경기, 인천, 강원	108	1.64	0.56	88	1.92	0.74	196	1.77	0.65
	소계	248	1.67	0.55	219	1.87	0.76	467	1.76	0.65
지방	충청	182	1.36	0.52	113	1.90	0.75	295	1.57	0.61
	전라	77	1.99	0.70	90	1.88	0.65	167	1.93	0.68
	경상	210	1.54	0.59	132	1.98	0.78	342	1.71	0.66
	소계	469	1.54	0.58	335	1.93	0.74	804	1.70	0.65
전체		717	1.59	0.57	554	1.91	0.75	1271	1.73	0.65

\* : 대학 지역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 1. 대학 졸업 이후 첫 직장 비교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 졸업 이후 첫 직장에 대한 대학 지역별 비교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 졸업 이후 첫 직장 진입까지의 이행 기간, 정규직, 상용직 등 고용형태, 중소기업, 대기업 등 직장 규모, 임금 등을 대학 지역별 비교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또는 각 권역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대학 졸업 이후 첫 직장 진입까지의 기간을 보면,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6.15개월, 지방대학 졸업자는 5.93개월로 지방대학 졸업자가 다소 짧은 기간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별로 보면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남자의 첫 직장 이행기간은 7.30개월이고, 여자는 4.44개월로 여자가 남자 보다 약 3개월 짧으며, 수도권 대학 남자 졸업자의 첫 직장 이행기간은 8.07개월로 가장 길었다. 첫 직장 이행 기간은 대학 지역별 차이는 유의 하지 않았으나,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게 특징적이다.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고용형태, 산업분야 등 추가적인 일자리 특성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이행 기간

(단위 : 명, 개월)

		첫 직장 이행 기간(개월)*					
		남자		여자		전체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수도권	서울	118	7.93	111	3.88	229	5.97
	경기, 인천, 강원	85	8.26	80	4.45	165	6.41
	소계	203	8.07	191	4.12	394	6.15
지방	충청	125	6.31	91	4.35	216	5.49
	전라	69	6.68	70	5.77	139	6.22
	경상	168	7.37	107	4.20	275	6.13
	소계	362	6.87	268	4.66	630	5.93
전체		565	7.30	459	4.44	1024	6.02

\* : 대학 지역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의 정규직 비율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 70.0%, 지방대학 졸업자 66.0%로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4%p정도 높게 나타났다. 남자의 정규직 비율은 75.9%, 여자의 정규직 비율은 57.4%로 남녀의 정규직 비율 차이(18.5%p)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 남자 졸업자(79.7%)와 지방 대학 여자 졸업자(55.9%)의 정규직 비율 차이는 무려 23.8%p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 강원 지역 대졸자의 정규직 비율이 73.5%로 가장 높았고, 충청 지역이 6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류장수(2005)의 지방대 졸업생이 수도권대 졸업생에 비해 정규직에 취업한 비율이 낮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표 4>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의 고용형태 : 정규직 비율

(단위 : 명(%))

		첫 직장의 고용형태 : 정규직 비율					
		남자		여자		전체	
수도권	서울	86	(78.9)	53	(54.6)	139	(67.5)
	경기, 인천, 강원	59	(80.8)	49	(66.2)	108	(73.5)
	소계	145	(79.7)	102	(59.6)	247	(70.0)
지방	충청	89	(74.2)	45	(51.1)	134	(64.4)
	전라	46	(71.9)	47	(69.1)	93	(70.5)
	경상	113	(74.3)	54	(51.4)	167	(65.0)
	소계	248	(73.8)	146	(55.9)	394	(66.0)
전체		393	(75.9)	248	(57.4)	641	(67.5)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의 상용직 비율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 76.5%, 지방대학 졸업자 72.7%로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3.8%p정도 높게 나타났다. 남자의 상용직 비율은 79.7%, 여자의 상

용직 비율은 67.4%로 남녀의 상용직 비율 차이 12.3%p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정규직 비율과 마찬가지로 경기, 인천, 강원 지역 대졸자의 상용직 비율이 80.3%로 가장 높았고, 충청 지역이 7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용직 비율은 정규직 비율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표 5>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의 고용형태 : 상용직 비율

(단위 : 명(%))

		첫 직장의 고용형태 : 상용직 비율					
		남자		여자		전체	
수도권	서울	91	(83.5)	61	(62.9)	152	(73.8)
	경기, 인천, 강원	62	(84.9)	56	(75.7)	118	(80.3)
	소계	153	(84.1)	117	(68.4)	270	(76.5)
지방	충청	91	(75.8)	57	(64.8)	148	(71.2)
	전라	49	(76.6)	51	(75.0)	100	(75.8)
	경상	120	(78.9)	66	(62.9)	186	(72.4)
	소계	260	(77.4)	174	(66.7)	434	(72.7)
전체		413	(79.7)	291	(67.4)	704	(74.1)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의 직장 규모를 살펴 보면,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중소기업(300인 미만) 취업 비율은 53.9%, 지방대학 졸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비율은 68.6%로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비율 보다 14.7%p 높은 수준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56.5%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반면, 여자는 71.3%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대학 여자 졸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비율은 80.3%로 매우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대졸자의 중소기업 취업 비율이 45.4%로 가장 낮았고, 전라 지역 대졸자의 중소기업 취업 비율은 74.2%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라 지역 대졸자와 서울 지역 대졸자의 중소기업 취업 비율의 차이는 28.8%p로 지역간 차이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박성재(2005), 류장수(2005)의 지방대 졸업생이 사업체 규모 등에서 열위에 있다와 동일한 결과이다.

<표 6>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의 직장 규모 : 중소기업 비율

(단위 : 명(%))

		첫 직장의 직장 규모 : 중소기업 비율					
		남자		여자		전체	
수도권	서울	46	(41.8)	47	(49.5)	93	(45.4)
	경기, 인천, 강원	46	(64.8)	48	(67.6)	94	(66.2)
	소계	92	(50.8)	95	(57.2)	187	(53.9)
지방	충청	79	(66.4)	70	(78.7)	149	(71.6)
	전라	46	(70.8)	52	(77.6)	98	(74.2)
	경상	74	(49.3)	86	(83.5)	160	(63.2)
	소계	199	(59.6)	208	(80.3)	407	(68.6)
전체		291	(56.5)	303	(71.3)	594	(63.2)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의 임금 수준을 지역간 비교해 보면,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182.5만원이고, 지방대학 졸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166만원으로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월평균 임금이 지방대학 졸업자에 비해 약 10%(16.5만원) 높은 수준이다. 이는 오호영(2007)의 지방대 졸업생의 월평균 임금은 수도권대학 졸업생에 비해 11.5% 낮았다는 결과와 유사한 차이를 보이며, 최바울, 김성환(2003), 류장수(2005), 김희삼(2010) 등의 연구 결과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성별로 보면, 여자의 월평균 임금은 142.5원으로 남자(196.7만원)에 비해 무려 54.2만원이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 대졸자의 월평균 임금이 188.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라 지역 대졸자의 월평균 임금은 155.5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은 중소기업 취업 비율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표 7>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의 임금

(단위 : 명, 만원)

		첫 직장의 월평균 임금(만원)***					
		남자		여자		전체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수도권	서울	114	214.7	100	157.8	214	188.1
	경기, 인천, 강원	81	201.5	72	144.7	153	174.8
	소계	195	209.2	172	152.3	367	182.5
지방	충청	112	193.7	88	139.0	200	169.6
	전라	66	178.5	68	133.1	134	155.5
	경상	154	190.8	103	135.5	257	168.6
	소계	332	189.3	259	136.0	591	166.0
전체		527	196.7	431	142.5	958	172.3

\*\*\* : 신뢰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 2. 대학 졸업 이후 직장 이동 비교

4년제 대학 졸업 이후 직장 이동시 고용형태, 직장 규모, 임금 등의 변화를 대학 지역별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직장, 두 번째 직장, 세 번째 직장의 자료를 활용하여 첫 번째 이직과 두 번째 이직에서의 고용형태, 직장 규모, 임금 변화가 대학 지역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대학 졸업 이후 첫 직장에서 두 번째 직장으로 이직시, 고용형태(정규직 여부)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61.6%, 지방대학 졸업자의 57.3%는 첫 직장이 정규직이었고, 이직 후 두 번째 직장도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21.2%, 지방대학 졸업자의 22.4%는 첫 직장이 비정규직이었고, 두 번째 직장도 여전히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직장, 두 번째 직장 정규직 유지 비율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지방대학 졸업자 보다 다소(4.3%p) 높은 반면, 첫 직장, 두 번째 직장 모두 비정규직인 비율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 지방대학 졸업자 모두 21~22%로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 강원 지역 대학 졸

업자의 정규직 유지 비율이 65.0%로 가장 높고, 전라 지역 대학 졸업자가 55.3%로 가장 낮았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상승한 경우는 13.5% 수준이며, 5.7%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대학 졸업 후 첫 번째 직장 이동 : 고용형태 변화(정규직 여부)

(단위 : 명(%))

		(첫 직장 → 두 번째 직장) 고용형태 변화						전체
		정규→정규	정규→비정규	비정규→정규	비정규→비정규			
수 도 권	서울	73 (59.3)	5 (4.1)	15 (12.2)	30 (24.4)	123 (100.0)		
	경기, 인천, 강원	52 (65.0)	3 (3.8)	12 (15.0)	13 (16.3)	80 (100.0)		
	소계	125 (61.6)	8 (3.9)	27 (13.3)	43 (21.2)	203 (100.0)		
지 방	충청	65 (59.1)	7 (6.4)	14 (12.7)	24 (21.8)	110 (100.0)		
	전라	47 (55.3)	9 (10.6)	10 (11.8)	19 (22.4)	85 (100.0)		
	경상	85 (57.0)	7 (4.7)	23 (15.4)	34 (22.8)	149 (100.0)		
	소계	197 (57.3)	23 (6.7)	47 (13.7)	77 (22.4)	344 (100.0)		
전체		322 (58.9)	31 (5.7)	74 (13.5)	120 (21.9)	547 (100.0)		

대학 졸업 이후 첫 직장에서 두 번째 직장으로, 두 번째 직장에서 세 번째 직장으로의 두 번의 이직시, 고용형태(정규직 여부) 변화를 살펴보면, 정규직 지속(정규직→정규직→정규직) 비율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53.1%, 지방대학 졸업자가 47.1%로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지방 대학 졸업자에 비해 6.0%p 높았다. 비정규직 지속(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12.2%, 지방대학 졸업자가 18.0%로 지방대학 졸업자가 수도권 대학 졸업자 보다 5.8%p 높았다. 고용형태 지속 이외에 고용형태 상승 또는 하향 또는 변동의 경우는 지역간 비율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상승(비정규직→정규직→정규직 또는 비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한 경우는 19.3%이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하향(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 또는 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한 경우는 9.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 강원 지역 대학 졸업자의 정규직 지속 비율이 54.1%로 가장 높았고, 충청 지역 대학 졸업자의 정규직 지속 비율이 47.1%로 가장 낮았으며, 비정규직 지속 비율은 전라 지역 대학 졸업자가 1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9> 대학졸업 후 첫번째&두 번째 직장 이동 : 고용형태 변화(정규직 여부)

(단위 : 명(%))

		(첫 직장 → 두 번째 직장 → 세 번째 직장) 고용형태 변화					
		정규직 (지속)	비정규직 (지속)	상승 (비정규→ 정규)	하향 (정규→ 비정규)	기타 (정규↔ 비정규)	전체
수도권	서울	32 (52.5)	9 (14.8)	13 (21.3)	3 (4.9)	4 (6.6)	61 (100.0)
	경기, 인천, 강원	20 (54.1)	3 (8.1)	6 (16.2)	6 (16.2)	2 (5.4)	37 (100.0)
	소계	52 (53.1)	12 (12.2)	19 (19.4)	9 (9.2)	6 (6.1)	98 (100.0)
지방	충청	26 (45.6)	10 (17.5)	13 (22.8)	5 (8.8)	3 (5.3)	57 (100.0)
	전라	21 (50.0)	8 (19.0)	5 (11.9)	6 (14.3)	2 (4.8)	42 (100.0)
	경상	34 (46.6)	13 (17.8)	15 (20.5)	6 (8.2)	5 (6.8)	73 (100.0)
	소계	81 (47.1)	31 (18.0)	33 (19.2)	17 (9.9)	10 (5.8)	172 (100.0)
전체		133 (49.3)	43 (15.9)	52 (19.3)	26 (9.6)	16 (5.9)	270 (100.0)

대학 졸업 이후 첫 직장에서 두 번째 직장으로 이직시, 직장 규모(중소기업/대기업)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37.8%, 지방대학 졸업자의 19.8%는 첫 직장이 대기업이었고, 이직 후 두 번째 직장도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42.5%, 지방대학 졸업자의 63.8%는 첫 직장이 중소기업이었고, 두 번째 직장도 여전히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직장, 두 번째 직장 대기업 유지 비율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지방대학 졸업자 보다 18.0%p 높았고, 첫 직장, 두 번째 직장 모두 중소기업인 비율은 지방대학 졸업자 63.8%, 수도권 대학 졸업자 50.0%로 지방대학 졸업자가 수도권 대학 졸업자 보다 13.8%p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 대학 졸업자의 대기업 유지 비율이 44.2%로 가장 높고, 충청 지역 대학 졸업자가 12.6%로 가장 낮았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직장 규모가 상승한 경우는 6.9% 수준이며, 8.0%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직장 규모가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대학 졸업 후 첫 번째 직장 이동 : 직장 규모 변화(중소기업/대기업)

(단위 : 명(%))

		(첫 직장 → 두 번째 직장) 직장 규모 변화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대기업	전체
수도권	서울	51 (42.5)	7 (5.8)	9 (7.5)	53 (44.2)	120 (100.0)
	경기, 인천, 강원	47 (61.8)	5 (6.6)	3 (3.9)	21 (27.6)	76 (100.0)
	소계	98 (50.0)	12 (6.1)	12 (6.1)	74 (37.8)	196 (100.0)
지방	충청	75 (67.6)	12 (10.8)	10 (9.0)	14 (12.6)	111 (100.0)
	전라	56 (65.1)	7 (8.1)	6 (7.0)	17 (19.8)	86 (100.0)
	경상	88 (60.3)	6 (4.1)	15 (10.3)	37 (25.3)	146 (100.0)
	소계	219 (63.8)	25 (7.3)	31 (9.0)	68 (19.8)	343 (100.0)
전체		317 (58.8)	37 (6.9)	43 (8.0)	142 (26.3)	539 (100.0)

대학 졸업 이후 첫 직장에서 두 번째 직장으로, 두 번째 직장에서 세 번째 직장으로의 두 번의 이직시, 직장 규모(중소기업/대기업) 변화를 살펴보면, 대기업 지속(대기업→대기업→대기업) 비율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33.0%, 지방대학 졸업자가 13.0%로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지방대학 졸업자에 비해 20.0%p 높았다. 중소기업 지속(중소기업→중소기업→중소기업) 비율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43.6%, 지방대학 졸업자가 56.8%로 지방대학 졸업자가 수도권 대학 졸업자 보다 13.2%p 높았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상승(중소기업→중소기업→대기업 또는 중소기업→대기업→대기업)한 경우는 11.0%이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하향(대기업→대기업→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중소기업→중소기업)한 경우는 11.0%로 상승과 하향이 동일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대학 졸업자의 대기업 지속 비율이 37.9%로 가장 높았고, 충청 지역 대학 졸업자의 대기업 지속 비율이 10.0%로 가장 낮았다.

〈표 11〉 대학 졸업 후 첫번째&두번째 직장 이동 : 직장 규모 변화(중소기업/대기업)

(단위 : 명(%))

		(첫 직장 → 두 번째 직장 → 세 번째 직장) 고용형태 변화						전체
		중소기업 (지속)	대기업 (지속)	상승 (중소기업→ 대기업)	하향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중소기업↔ 대기업)		
수 도 권	서울	19 (32.8)	22 (37.9)	4 (6.9)	8 (13.8)	5 (8.6)	58 (100.0)	
	경기, 인천, 강원	22 (61.1)	9 (25.0)	2 (5.6)	3 (8.3)	0 (0.0)	36 (100.0)	
	소계	41 (43.6)	31 (33.0)	6 (6.4)	11 (11.7)	5 (5.3)	94 (100.0)	
지 방	충청	33 (55.0)	6 (10.0)	9 (15.0)	4 (6.7)	8 (13.3)	60 (100.0)	
	전라	25 (61.0)	5 (12.2)	7 (17.1)	4 (9.8)	0 (0.0)	41 (100.0)	
	경상	38 (55.9)	11 (16.2)	7 (10.3)	10 (14.7)	2 (2.9)	68 (100.0)	
	소계	96 (56.8)	22 (13.0)	23 (13.6)	18 (10.7)	10 (5.9)	169 (100.0)	
전체		137 (52.1)	53 (20.2)	29 (11.0)	29 (11.0)	15 (5.7)	263 (100.0)	

대학 졸업 이후 첫 번째 이직과 두 번째 이직시 임금 변화를 보면, 첫 번째 이직시(첫 직장 → 두 번째 직장) 임금이 상승한 비율은 59.5%, 임금이 하락한 경우는 31.4%이며, 동일 임금으로 이직한 경우는 9.1%이었다. 첫 이직시, 임금 상승 비율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 60.6%, 지방대학 졸업자 58.9%로 지역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반면, 첫 이직시 임금 하락 비율은 지방대학 졸업자가 33.0%로 수도권 대학 졸업자(28.8%)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이직시(두 번째 직장 → 세 번째 직장) 임금이 상승한 비율은 62.4%, 임금이 하락한 경우는 28.7%이며, 동일 임금으로 이직한 경우는 8.9%이었다. 두 번째 이직시, 임금 상승 비율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 70.9%, 지방대학 졸업자 57.5%로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지방대학 졸업자에 비해 임금 상승 비율이 높았다.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경우, 첫 이직시 보다 두 번째 이직시 임금 상승 비율이 약 10%p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첫 이직과 두 번째 이직을 종합해 보면, 이직을 할 경우 60~62%정도는 임금이 상승하고, 9%정도는 동일 임금을 유지하며, 29~31%정도는 임금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12> 대학 졸업 후 첫 번째, 두 번째 직장 이동 : 임금 변화

(단위 : 명(%))

		(첫 직장 → 두 번째 직장) 임금 변화				(두 번째 직장 → 세 번째 직장) 임금 변화			
		상승	동일	하락	전체	상승	동일	하락	전체
수도권	서울	77 (63.1)	13 (10.7)	32 (26.2)	122 (100.0)	45 (67.2)	6 (9.0)	16 (23.9)	67 (100.0)
	경기, 인천, 강원	49 (57.0)	9 (10.5)	28 (32.6)	86 (100.0)	28 (77.8)	0 (0.0)	8 (22.2)	36 (100.0)
	소계	126 (60.6)	22 (10.6)	60 (28.8)	208 (100.0)	73 (70.9)	6 (5.8)	24 (23.3)	103 (100.0)
지방	충청	63 (59.4)	12 (11.3)	31 (29.2)	106 (100.0)	38 (65.5)	6 (10.3)	14 (24.1)	58 (100.0)
	전라	48 (58.5)	5 (6.1)	29 (35.4)	82 (100.0)	24 (53.3)	5 (11.1)	16 (35.6)	45 (100.0)
	경상	85 (58.6)	10 (6.9)	50 (34.5)	145 (100.0)	41 (53.9)	8 (10.5)	27 (35.5)	76 (100.0)
	소계	196 (58.9)	27 (8.1)	110 (33.0)	333 (100.0)	103 (57.5)	19 (10.6)	57 (31.8)	179 (100.0)
전체	322 (59.5)	49 (9.1)	170 (31.4)	541 (100.0)	176 (62.4)	25 (8.9)	81 (28.7)	282 (100.0)	

### 3. 직장 만족도, 업무 수준 및 지원 제도 혜택 비교

첫 직장 비교와 직장 이동 분석이 주로 대졸자들의 직장 진입과 경로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비교였다면, 본 절에서는 9차(2012)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직장 소재지 및 지원제도 혜택 등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직장만족도와 업무 수준 일치도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비교를 보완하였다.

대학 지역별 현 직장 소재지를 살펴보면, 졸업한 대학 지역과 현 직장의 지역이 일치하는 경우는, 서울 63.9%, 경기, 인천, 강원 47.2%, 충청 38.2%, 전라 63.2%, 경상 72.9%로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졸업한 대학 지역에서 직장에 취업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대졸자는 서울 지역으로 취업한 비율이 49.1%로 가장 높았다. 지방대학 졸업자의 서울 취업 비율은 20.9% 수준으로 나타났다. 충청 지역 대졸자의 졸업 대학 지역으로의 취업 비율(38.2%)은 전라(63.2%), 경상(72.9%) 지역에 비해 매우 낮으나, 서울 지역으로의 취업 비율은 33.0%로 전라(13.2%), 경상(15.4%) 지역에 비해 높았다. 이는 충청 지역 대졸자가 수도권으로 취업한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애초에 대학선택 단계에서 수도권 출신자들이 충청권으로 대학을 많이 진학하여 졸업 후 다시 돌아오는 비율이 높았거나, 전라, 경상 지역 대졸자에 비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취업이 더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충청 지역의 특징은 류장수(2005)의 지방대학 간에도 차별성이 존재하여, 충청권 대학 졸업생은 영남권이나 호남권 졸업자 보다 수도권 졸업자들과 닮아 있다는 결과를 뒷받침 해주는 결과이다.

<표 13> 대학 지역별 직장 소재지 현황 : 9차(2012)년 현 일자리 기준

(단위 : 명(%))

		직장 소재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전체
수도권	서울	129 (63.9)	51 (25.2)	10 (5.0)	4 (2.0)	8 (4.0)	202 (100.0)
	경기, 인천, 강원	79 (49.1)	76 (47.2)	5 (3.1)	1 (0.6)	0 (0.0)	161 (100.0)
	소계	208 (57.3)	127 (35.0)	15 (4.1)	5 (1.4)	8 (2.2)	363 (100.0)
지방	충청	70 (33.0)	45 (21.2)	81 (38.2)	7 (3.3)	9 (4.2)	212 (100.0)
	전라	19 (13.2)	18 (12.5)	6 (4.2)	91 (63.2)	10 (6.9)	144 (100.0)
	경상	41 (15.4)	23 (8.6)	4 (1.5)	4 (1.5)	194 (72.9)	266 (100.0)
	소계	130 (20.9)	86 (13.8)	91 (14.6)	102 (16.4)	213 (34.2)	622 (100.0)
전체		338 (34.3)	213 (21.6)	106 (10.8)	107 (10.9)	221 (22.4)	985 (100.0)

대학 지역별 현 직장 만족도(5점 만점)를 비교해 보면, '업무', '의사소통/인간관계', '임금', '개인의 발전 가능성' 등의 만족도에서는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지방대학 졸업자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반면, '근무환경', '근무시간' 등에서는 지방대학 졸업자가 수도권 대학 졸업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어서 전반적인 직장만족도는 지역별 차이가 없는 유사한 수준으로 보인다. 지역별 직장만족도 수준이 비슷하나, '복지후생'과 '안정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장의 복지후생 만족도를 보면,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3.23점, 지방대학 졸업자는 3.11점으로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지방대학 졸업자에 비해 '복지후생'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복지후생'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안정성' 만족도도 수도권 대학 졸업자(3.63점)가 지방대학 졸업자(3.47점)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표 14> 대학 지역별 직장 만족도 : 9차(2012)년 현 일자리 기준

(단위 : 명, 점)

		빈도	직장 만족도(5점 만점)							
			업무	근무 환경	근무 시간	의사소통/ 인간관계	임금	개인의 발전 가능성	복지 후생*	안정성**
수도권	서울	203	3.47	3.56	3.42	3.68	3.31	3.37	3.38	3.79
	경기, 인천, 강원	161	3.34	3.39	3.25	3.70	2.96	3.30	3.04	3.43
	소계	364	3.41	3.48	3.34	3.69	3.15	3.34	3.23	3.63
지방	충청	212	3.44	3.50	3.43	3.69	3.05	3.29	3.06	3.55
	전라	144	3.43	3.59	3.32	3.70	3.20	3.29	3.13	3.40
	경상	266	3.34	3.51	3.40	3.59	3.03	3.21	3.15	3.45
	소계	622	3.40	3.53	3.39	3.65	3.08	3.26	3.11	3.47
전체		986	3.40	3.51	3.37	3.66	3.10	3.29	3.16	3.53

\* : 신뢰수준 0.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 : 신뢰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대학 지역별 현 직장의 일과 대학 전공과의 일치도(5점 만점)를 비교해 보면, 지방대학 졸업자(3.45점)에 비해 수도권 대학 졸업자(3.53점)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일과 전공 일치도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 53.8%, 지방대학 졸업자 51.8%로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다소 높았다. 지역별로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을 보면, 서울 지역 대졸자가 58.1%로 가장 높은 반면, 경기, 인천, 강원 지역 대졸자가 48.4%로 가장 낮았다. 수도권(서울/경기, 인천, 강원) 내에서의 일과 전공 일치도 차이가 큰 것이 특징적이다.

<표 15> 대학 지역별 일과 전공 일치도 비교 : 9차(2012)년 현 일자리 기준

(단위 : 명(%), 점)

		일과 전공 일치도						전체	점수 (5점 만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수도권	서울	11 (5.4)	15 (7.4)	59 (29.1)	68 (33.5)	50 (24.6)	203 (100.0)	3.65	
	경기, 인천, 강원	14 (8.7)	15 (9.3)	54 (33.5)	50 (31.1)	28 (17.4)	161 (100.0)	3.39	
	소계	25 (6.9)	30 (8.2)	113 (31.0)	118 (32.4)	78 (21.4)	364 (100.0)	3.53	
지방	충청	24 (11.3)	21 (9.9)	56 (26.4)	59 (27.8)	52 (24.5)	212 (100.0)	3.44	
	전라	6 (4.2)	10 (6.9)	49 (34.0)	50 (34.7)	29 (20.1)	144 (100.0)	3.60	
	경상	27 (10.2)	29 (10.9)	78 (29.3)	79 (29.7)	53 (19.9)	266 (100.0)	3.38	
	소계	57 (9.2)	60 (9.6)	183 (29.4)	188 (30.2)	134 (21.5)	622 (100.0)	3.45	
전체		82 (8.3)	90 (9.1)	296 (30.0)	306 (31.0)	212 (21.5)	986 (100.0)	3.48	

\* : 대학 지역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대학 지역별 현 직장의 일과 기술, 능력 수준 비교를 보면,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58.2%, 지방대학 졸업자의 64.6%가 ‘내 수준과 비슷하다’라고 응답하였고,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23.9%, 지방대학 졸업자의 18.0%는 ‘내 수준보다 (아주) 높다’라고 응답하였다. ‘내 수준보다 (아주)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 17.9%, 지방대학 졸업자 17.4%이었다. 일과 기술, 능력 수준 점수((-2~2점, -2=아주 낮다, 0=비슷하다, 2=아주 높다)는 수도권 대학 졸업자(0.05 점)가 지방대학 졸업자(-0.01점)에 비해 다소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체 평균 점수는 0.01점으로 대부분의 졸업자가 일과 기술, 능력 수준이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

<표 16> 대학 지역별 일과 기술, 능력 수준 비교 : 9차(2012)년 현 일자리 기준

(단위 : 명(%), 점)

		일과 기술, 능력 수준					전체	점수*
		내 수준보다 아주 높다	내 수준보다 높다	내 수준과 비슷하다	내 수준보다 낮다	내 수준보다 아주 낮다		
수 도 권	서울	1 (0.5)	40 (19.7)	126 (62.1)	31 (15.3)	5 (2.5)	203 (100.0)	.00
	경기, 인천, 강원	3 (1.9)	43 (26.7)	86 (53.4)	26 (16.1)	3 (1.9)	161 (100.0)	.11
	소계	4 (1.1)	83 (22.8)	212 (58.2)	57 (15.7)	8 (2.2)	364 (100.0)	.05
지 방	충청	5 (2.4)	40 (18.9)	137 (64.6)	24 (11.3)	6 (2.8)	212 (100.0)	.07
	전라	2 (1.4)	12 (8.3)	104 (72.2)	24 (16.7)	2 (1.4)	144 (100.0)	-.08
	경상	1 (0.4)	52 (19.5)	161 (60.5)	44 (16.5)	8 (3.0)	266 (100.0)	-.02
	소계	8 (1.3)	104 (16.7)	402 (64.6)	92 (14.8)	16 (2.6)	622 (100.0)	-.01
전체		12 (1.2)	187 (19.0)	614 (62.3)	149 (15.1)	24 (2.4)	986 (100.0)	.01

\* : 대학 지역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2점=내 수준보다 아주 낮다/-1점=내 수준 보다 낮다/0점=내 수준과 비슷하다/  
 1점=내 수준보다 높다/2점=내 수준보다 아주 높다

대학 지역별 현 직장의 일과 교육 수준 비교를 보면,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62.1%, 지방대학 졸업자의 65.8%가 '내 수준과 비슷하다'라고 응답하였고,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15.9%, 지방대학 졸업자의 14.5%는 '내 수준보다 (아주) 높다'라고 응답하였다. '내 수준보다 (아주)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 22.0%, 지방대학 졸업자 19.8%이었다. 일과 교육 수준 점수 (-2~2점, -2=아주 낮다, 0=비슷하다, 2=아주 높다)는 수도권 대학 졸업자(-0.07점)와 지방대학 졸업자(-0.07점)는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점수는 -0.07점으로 대부분의 졸업자가 일과 교육 수준이 비슷하거나 내 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7> 대학 지역별 일과 교육 수준 비교 : 9차(2012)년 현 일자리 기준

(단위 : 명(%), 점)

		일과 교육 수준					전체	점수*
		내 수준보다 아주 높다	내 수준보다 높다	내 수준과 비슷하다	내 수준보다 낮다	내 수준보다 아주 낮다		
수 도 권	서울	1 (0.5)	25 (12.3)	131 (64.5)	42 (20.7)	4 (2.0)	203 (100.0)	-.11
	경기, 인천, 강원	2 (1.2)	30 (18.6)	95 (59.0)	32 (19.9)	2 (1.2)	161 (100.0)	-.01
	소계	3 (0.8)	55 (15.1)	226 (62.1)	74 (20.3)	6 (1.6)	364 (100.0)	-.07
지 방	충청	1 (0.5)	37 (17.5)	138 (65.1)	31 (14.6)	5 (2.4)	212 (100.0)	-.01
	전라	0 (0.0)	13 (9.0)	101 (70.1)	29 (20.1)	1 (0.7)	144 (100.0)	-.13
	경상	0 (0.0)	39 (14.7)	170 (63.9)	51 (19.2)	6 (2.3)	266 (100.0)	-.09
	소계	1 (0.2)	89 (14.3)	409 (65.8)	111 (17.8)	12 (1.9)	622 (100.0)	-.07
전체		4 (0.4)	144 (14.6)	635 (64.4)	185 (18.8)	18 (1.8)	986 (100.0)	-.07

\* : 대학 지역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2점=내 수준보다 아주 낮다/-1점=내 수준 보다 낮다/0점=내 수준과 비슷하다/  
 1점=내 수준보다 높다/2점=내 수준보다 아주 높다



대학 지역별 직장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 대학 졸업자 직장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은 건강보험 90.7%, 고용보험 90.3% 등이고, 지방대학 졸업자 직장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은 건강보험 88.4%, 고용보험 87.6%이다. 직장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직장이 지방대학 졸업자의 직장 보다 다소 높으나 유사한 수준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 지역 대졸자의 직장이 전반적으로 사회보험 가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18> 대학 지역별 직장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 : 9차(2012)년 현 일자리 기준

(단위 : 명(%))

		직장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			
		국민연금/특수 지역연금 가입 비율	국민건강보험 가입 비율	고용보험 가입 비율	산재보험 가입 비율
수도권	서울	150 (80.6)	166 (88.8)	164 (89.1)	162 (87.6)
	경기, 인천, 강원	117 (84.8)	125 (93.3)	124 (91.9)	119 (87.5)
	소계	267 (82.4)	291 (90.7)	288 (90.3)	281 (87.5)
지방	충청	151 (82.1)	168 (90.8)	164 (89.6)	160 (88.9)
	전라	105 (84.0)	106 (84.8)	107 (85.6)	101 (80.8)
	경상	202 (86.0)	206 (88.4)	202 (87.1)	199 (85.4)
	소계	458 (84.2)	480 (88.4)	473 (87.6)	460 (85.5)
전체		725 (83.5)	771 (89.2)	761 (88.6)	741 (86.3)

대학 지역별 직장의 제도 혜택 비율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 대학 졸업자 직장의 제도 혜택 비율은 상여금 수혜 69.6%, 초과근로수당 수혜 59.6% 등이고, 지방대학 졸업자 직장의 제도 혜택 비율은 상여금 수혜 66.4%, 초과근로수당 수혜 52.8%이다. 직장의 제도 혜택 비율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직장이 지방대학 졸업자의 직장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19> 대학 지역별 직장의 제도 혜택 비율 : 9차(2012)년 현 일자리 기준

(단위 : 명(%))

		직장의 제도 혜택 비율				
		퇴직금 수혜 비율	상여금 수혜 비율	초과근로수당 수혜 비율	유급휴가 수혜 비율	기업연금 수혜 비율
수도권	서울	152 (81.7)	134 (72.8)	100 (54.3)	126 (68.1)	65 (36.9)
	경기, 인천, 강원	113 (81.9)	90 (65.2)	92 (66.7)	85 (61.6)	41 (31.5)
	소계	265 (81.8)	224 (69.6)	192 (59.6)	211 (65.3)	106 (34.6)
지방	충청	154 (83.2)	122 (65.9)	104 (55.9)	112 (60.9)	39 (22.0)
	전라	101 (79.5)	81 (64.3)	72 (58.1)	77 (60.6)	32 (26.2)
	경상	183 (78.2)	159 (67.9)	111 (47.4)	127 (54.5)	45 (20.3)
	소계	438 (80.2)	362 (66.4)	287 (52.8)	316 (58.1)	116 (22.3)
전체		703 (80.8)	586 (67.6)	479 (55.3)	527 (60.8)	222 (26.8)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졸자들의 직장이동과 일자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6~9차년도 한국 교육고용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직업력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은 주로 2008년~2012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이며, 졸업 이후 일자리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소재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고,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으로 구분하고, 지방은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첫 일자리와 직장경력, 일자리의 특징에 대해 지역별 차이를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학졸업 이후 연 평균 직장 수는 약 0.65개이며 근속년수는 약 1년 6개월 정도였다. 졸업 후 첫 직장으로서의 이행기간은 수도권 졸업자 6.15개월, 지방 졸업자 5.93개월로 큰 차이는 없으나, 성별 변수를 추가하면 수도권 남성들은 8.07개월로 가장 길었고, 수도권 여성들은 4.12개월로 차이를 보인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의 정규직 비율은 수도권 졸업자가 70%, 지방대학 졸업자 66%로 수도권 대학졸업자가 높았고, 성별을 추가하여 비교하면 수도권 남성은 79.7%, 수도권 여성은 59.6%로 확연히 차이가 나타났다. 첫 직장의 상용직 비율 역시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하면 수도권이 약간 높았으나, 성별변수를 추가하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직장의 직장규모에서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비율을 비교하면 수도권 졸업자가 53.9%, 지방 졸업자는 68.6%로 지방 졸업자의 비율이 높았다. 세부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45.4%였고, 가장 높은 곳은 전라권으로 74.2%였다. 임금 역시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수도권은 182.5만원, 지방 졸업자는 166만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부지역으로는 서울이 188.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라권은 155.5만원으로 30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직업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졸자들의 직장이동에 대한 변화를 고용형태, 직장규모, 임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형태 변화에서 정규직에 대한 지속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높고, 비정규직 지속은 지방대학 졸업자가 비슷하거나 더 높았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하향비율은 지방대학이 높았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상향 비율은 두 지역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방 중에서도 전라지역의 경우 정규직 유지비율이 낮은 편이고 비정규직 지속비율은 높아 대졸자의 경력 이동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직장규모의 변화로 대기업을 지속하고 있는 비율은 수도권 졸업자가 37.8%, 지방대학 졸업자는 19.8%로 차이를 보인다. 반면, 중소기업을 지속하고 있는 비율은 수도권이 50%, 지방대학은 63.8%로 지방대학 졸업자가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으로의 이동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패턴은 세 번째 직장으로도 이어지는데 지방대학 졸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지속률이 수도권 대학 졸업자에 비해 13%p 높고, 대기업을 지속할 비율은 수도권 졸업자에 비해 20%p 정도 낮았다.

다음은 직장이동에 따른 임금변화를 살펴본 결과이다. 첫 이직시, 임금 상승 비율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 60.6%, 지방대학 졸업자 58.9%로 차이는 거의 없었다. 반면, 첫 이직시 임금 하락 비율은 지방대학 졸업자가 33.0%로 수도권 대학 졸업자(28.8%) 보다 다소 높았고, 두 번째 이직시(두 번째 직장 → 세 번째 직장) 임금 상승 비율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 70.9%, 지방대학 졸업자 57.5%로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지방대학 졸업자에 비해 임금 상승 비율이 높았다.

세 번째로 9차년도(2012) 현 일자리 변수를 이용하여 직장소재지와 직장만족도, 일치도, 직장의 지원제도 수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장소재지를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 졸업자들이 지방으로 취업하는 비율은 10% 수준으로 낮았다. 그러나 지방대학 졸업자의 경우 수도권으로의 취업 비율이 높은데, 그 중에서 충청지역의 약 54%가 수도권에 취업하였다. 대학 지역 내에 취업한 비율은 38.2%로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았다. 전라지역과 경상지역은 약 24%~25%정도가 수도권으로 취업하였었고, 졸업대학 지역 내에 취업하는 비율은 전라지역이 63.2%, 경상지역은 72.9%로 나타났다.

직장만족도를 업무, 근무환경, 근무시간,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임금, 개인의 발전 가능성, 복지후생, 안정성의 8개 항목으로 응답한 결과 복지후생과 안정성에서 지역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항목 모두 수도권 졸업자들의 만족도가 지방 졸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전공 일치도를 비교한 결과 수도권은 3.53점(5점만점), 지방졸업자는 3.45점으로 수도권 졸업자가 더 높았다. 업무와 본인의 기술이나 능력을 비교하는 문항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수도권 졸업자의 경우 업무가 내 기술이나 능력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 대학 졸업자의 경우 내 수준보다 낮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과 교육수준을 비교하는 문항에서는 두 지역 모두 내 수준보다 낮은 곳에서 응답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지역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직장의 지원제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4대 보험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수도권 졸업자의 직장에서 지원비율이 높았고, 퇴직금,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유급휴가, 기업연금 등의 제도에서도 모두 수도권 졸업자들의 직장에서 지원받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 측면에서 지역별 차이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모든 상황에서 지방 대학 졸업자의 성과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와도 유사하여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성과 차이가 있음을 KEEP 자료를 이용해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업력 변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유실이 많아 최종 분석에는 충분한 사례수가 수가 사용되지 못한 점과 분석기법이 단순한 점은 한계이다.

그럼에도 직업이동 과정에서의 지역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작업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향후 수도권 대학 졸업자와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하고, 지방별로도 지역경제 상황과 인적자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 진미석(2013). 수도권 및 지방대학생 핵심역량의 격차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교육사회학회.
- 김희삼(2010).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별 교육격차. 한국개발연구 제32권 제 2호. 한국개발연구원.
- 오호영(2007).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성과 - 지방대생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30권 2권. 한국노동경제학회.
- 류장수(2005)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분석 :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제28권 2. 한국노동경제학회.
- 박성재(2005)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첫번째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5권 제4호. 한국노동연구원.
- 양정승, 류지영, 황성수(2013). 지역대학생들의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양정승, 류지영(2014).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행태 분석. KRIVET Issue Brief 44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우해봉(2012). 청년층의 이직과정 분석 : 교육수준별 및 종사상지위별 차이를 중심으로.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 남기성(2012). 청년층 일자리 이동에 관한 연구.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 김중성 외(2011). 대졸청년층 일자리이동과 하향취업탈출.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 최윤미, 길혜지(2013). 대졸자의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학교 요인 분석.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 박재민, 김영규, 전재식(2011). 대졸자의 중소기업 취업이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노동정책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노동연구원.
- 최바울, 김성환(2003).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성과분석: 수도권 vs 지방대학. 제2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 교육부(2014).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발표. 보도자료